

戰略思想과 戰略理論의 새로운 接近



자 유 기 고 가
(豫)准將 姜永五*

◇ 目 次 ◇

- | | |
|------------------|-------------------------|
| I. 서 론 | IV. 均衡戰略思想과 均衡戰略理論의 접근 |
| II. 軍事戰略思想의 수용 | V. 결 론 |
| III. 軍事戰略理論의 적용 | |

I. 서 론

세계지도를 걸쳐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나라는 북방으로 아시아 대륙과 연결된 大陸性이 부각되나 세계지도를 거꾸로 걸어 보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海洋性이 부각되는 특이한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半島國은 완전한 대륙국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한 해양국도 아닌 상태이면서 대륙국과 해양국의 兩面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국의 지리적 특성에 추가하여 우리 나라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중국과,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중국, 일본과 충돌 내지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 해군사관학교·미 해군대학 졸업, 제6전단장, 해군교육사령관, 국방대학원 군사연구위원 역임

반도국이 강대국일 때는 대륙과 해양에 대한 成長尖端的 機能을 갖고 그 반대로 약소국일 때는 대륙과 해양에 대한 緩衝的 機能이 있다고 볼 때 반도국인 한국이 과연 어떠한 전략사상과 전략이론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본 전략사상은 크게 보아 大陸戰略思想과 海洋戰略思想으로 구분되며 양대 전략사상 중에서 어느 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군사전략인 지상, 해양 및 항공전략은 큰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략사상과 전략이론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수용과 적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 나라가 추구해야 할 均衡戰略思想과 均衡戰略理論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특히 작전환경과 무기체계를 달리하는 각 군사학파간에 격렬한 논쟁을 유발시킨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대한 전략사고의 본질을 무조건 덮어두고 기존의 전략사고에만 집착할 수는 없다. 필자는 줄저인 「韓半島의 海上戰略論」¹⁾과 「韓國의 軍事戰略思考論」²⁾을 통하여 전략사상과 전략이론의 과거의 수용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나라가 과연 전략사상과 전략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야 하느냐의 전략 문제를 풀어 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II. 軍事戰略思想의 수용

우리 나라가 군사, 경제 및 정치·외교를 포함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사상을 받아 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1) 拙著, 韓半島의 海上戰略論(兵學社, 1998), pp. 333~349.

2) 拙著, 韓國의 軍事戰略思考論(연경문화사, 1991), pp. 49~66.

첫째는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대륙학파의 대륙전략사상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해양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해양학파의 해양전략사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대륙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다 같이 진출해야 한다는 균형전략사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항공학파는 항공전략사상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나 항공전략사상은 국가안보전략 수준보다는 군사전략 수준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정책과 국가안보전략 수준에서는 항공전략사상을 포함하지 않았다.

1. 대륙전략사상의 수용

가. 과거의 수용

영국의 지리학자였던 매킨더(Halford J. Mackinder)는 제국주의적 心臟地域理論³⁾을 내세워 마한이 주장했던 海洋力 時代의 쇠퇴를 주장했으며 유라시아 심장지역(Heartland)을 장악하는 대륙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구대륙전략사상의 기본은 대륙에 광대한 生活空間(Lebensraum)을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自給自足(Autarky)을 성취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을 수용한 때는 고구려의 廣開土大王 時代였다. 5세기경 고구려는 西로는 遼河線을 돌파하고 南으로는 아산만과 영덕을 잇는 선까지 내려가는 판도를 개척하여 백제와 신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北으로는 북부여를 장악하였으며, 말갈족의 대부분을 복속시킴과 아울러 東으로는 거란지역에 압력을 가하여 거란족의 상당부분을 예하에 귀속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북경지역까지 고구려의 세력이 대륙으로 뻗쳐 나갔었다.⁴⁾

3) Derwent Whittlesey, *Makers of Modern Strategy*(Princeton, 1973), p. 390.

4) 韓民族의 용틀임(육군본부 정훈감실, 1983), pp. 158~160.

나. 현재와 미래의 수용

분단한국의 입장에서 이상과 같은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을 수용하려면 한국은 통일을 성취하고 고구려시대의 응지를 되살려 만주, 요동반도 및 극동 러시아 등지를 점령하여 한국인 생활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의 수용은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큰 전쟁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도 일부 대륙학파들은 우리 민족이 만주와 극동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많이 진출하여 평화적으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 즉 농지개간, 공장건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이러한 공동이익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한국이 대륙으로 영토확장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며 점령을 통한 대륙으로의 생활공간 확보와 자급자족 해결보다는 이제는 대륙과의 通商交易, 문화교류 및 자유왕래 등의 공존공영에 중점을 둔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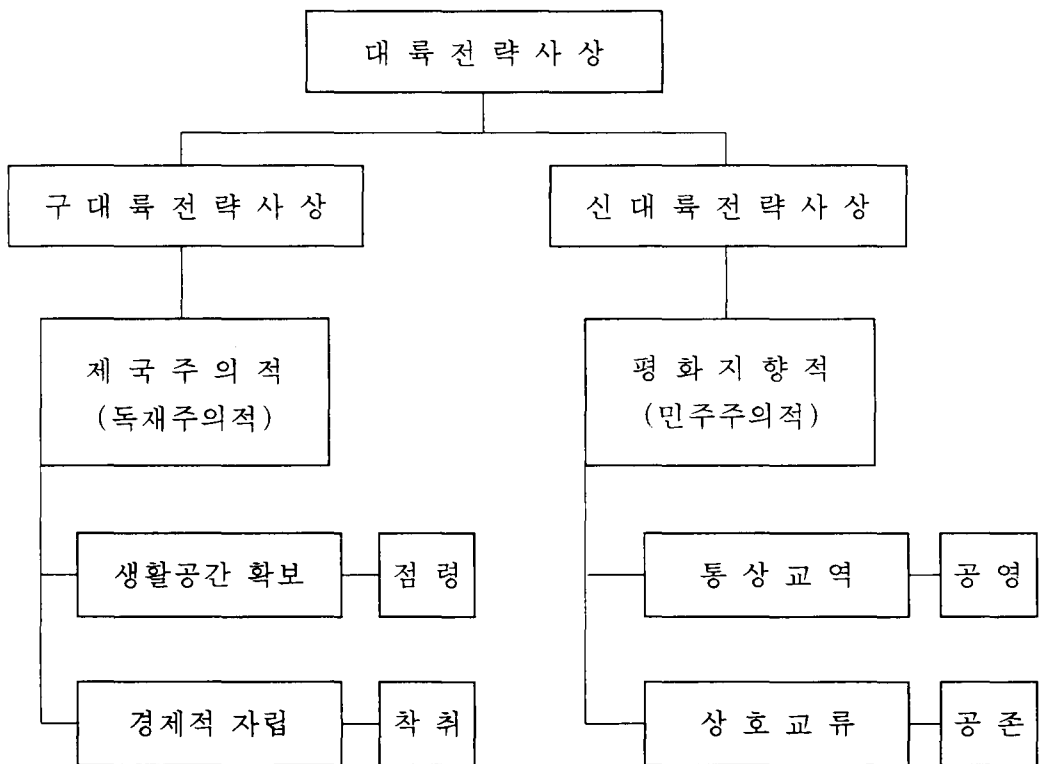
따라서 구대륙전략사상이 생활공간과 자급자족에 중점을 둔 제국주의적 사상이었다면 신대륙전략사상은 통상교역과 상호교류에 중점을 둔 평화지향적 사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지상국경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에 따른 것이며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에 따라 이제 지상국경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가장 편리하게 교역하고 교류하면서 가장 우호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새해가 되면 언제나 백두산과 백두대간의 웅장한 모습을 TV에 방영할 뿐만 아니라 고구려시대의 광대한 북방대륙 영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남·북한 통일은 몰라도 잃어버

렸던 북방대륙 영토를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국민정서를 잃어버린 북방대륙 영토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은 생활공간 확보와 자급자족 해결을 위하여 침략과 전쟁의 정당성을 이용했으나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은 통상교역과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이해와 공존공영의 인류애적 정당성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표 1〉 신·구 대륙전략사상의 비교



2. 해양전략사상의 수용

가. 과거의 수용

제국주의 구대륙전략사상이 대륙으로의 침략과 전쟁의 과학적 정당성에 이용된 바와 같이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도 해양으로의 침략과 전쟁의

과학적 정당성에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마한의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⁵⁾은 해양력이 국가의 成長, 繁榮 및 安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데 본질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해군세력을 육성하여 海洋支配(制海權)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마한의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과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9세기 중반 張保臯의 해양시대를 들 수 있겠다. 그는 淸海鎮(莞島)의 加吏浦에 해군기지를 두고 1만 명의 水軍과 함께 함대를 건설하여 동북아 해역에서 해양지배(제해권)을 확립하였으며 이어서 交關船을 건조하고 지금의 山東半島에 新羅坊(院)을 설치하여 중국 및 일본과 해양무역을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장보고의 경우는 마한의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과는 달리 해군력으로 국가의 성장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지는 않았다. 장보고의 무역선단 규모를 짐작케 해주는 續日本後記⁶⁾에 의하면 “무역상들이 휴대한 물품은 백성의 뜻에 맡기어 자유로이 교역토록 하되 다만 제값에 매매하지 못하여 가산을 기울이는 일이 없게 하라.”는 일본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장보고의 무역선단이 큰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력을 무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양무역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현재와 미래의 수용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은 해군력을 과거와 같이 해외 식민지를 획득하여 국가의 성장을 기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해양력은 해양안보, 해양무역, 수산업 및 해양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본질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해양지배(제해권)나 해양통제보다는 현존함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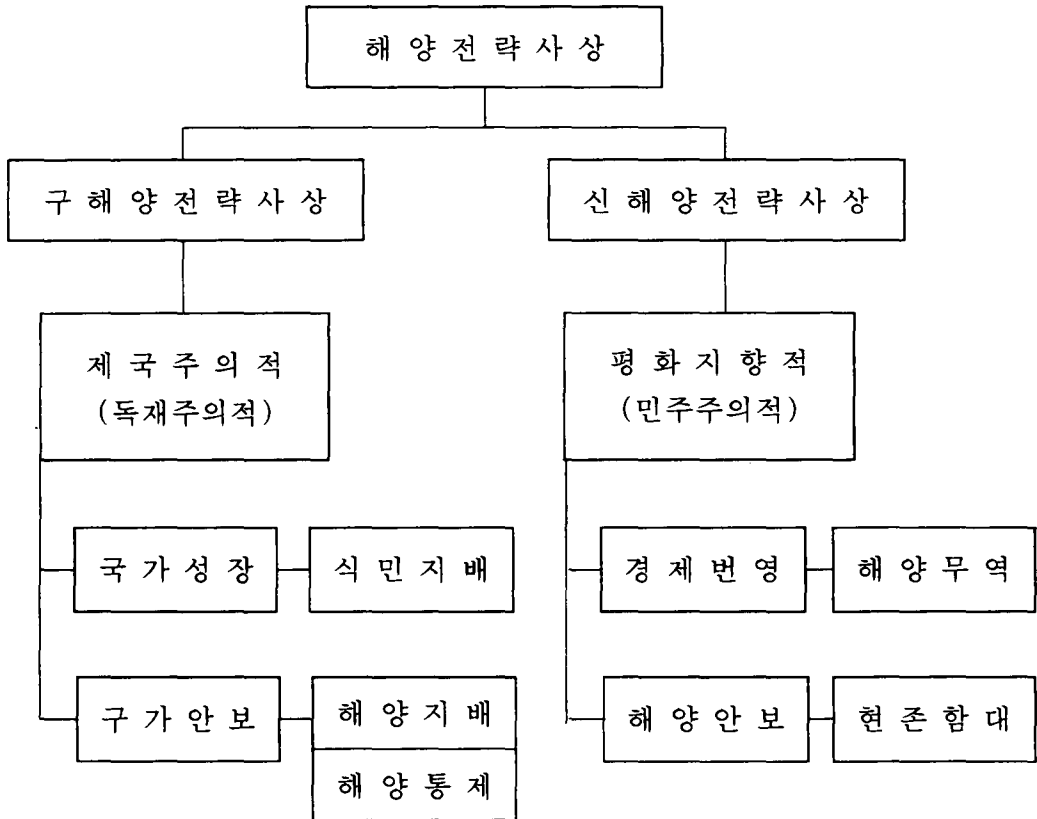
5) 마한은 해양사상을 크게 고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해양력을 침략과 전쟁의 정당성에 이용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음.

6) 崔碩男, 韓國水軍活動史(명양사, 1961), pp. 53~56.

마한의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의 핵심은 해양지배(해양통제)에 있다. 마한이 본 해양지배는 우리 자신의 해양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도전을 받지 않고 적은 어떠한 해양작전도 실시할 수 없는 의미의 완전한 것이었고 해양지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 해양세력을 격멸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해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비하여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의 본질은 한 국가가 해양지배나 해양통제를 실시할 수 없다 하여도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과 동맹관계를 이룬다면 과거와 같이 해양으로부터 대규모 침략을 당하거나 또는 해양무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당분간 세계 어느 나라도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력을 무시하고 해양안보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교통로를 파괴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표 2〉 신·구 해양전략사상의 비교



따라서 우리 나라는 미래의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을 수용함에 있어 해양지배와 해양통제보다는 현존함대 개념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특히 중국, 일본 및 러시아 해군들과 해양지배와 해양통제를 위한 무모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단 예외가 있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최소한 해양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해군은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과 동맹 관계에 따라 협력하는 한편, 주변국 해군을 자극하지 않고 서로가 공존공영하는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을 수용해야 한다. 과거의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으로부터 미래의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을 수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해양전략사상의 수용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으로부터 미래의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을 수용해야 한다.

Ⅲ. 軍事戰略理論의 적용

우리 나라가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전략의 국방지침에 따라 군사전략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지상, 해양 및 항공전략이론의 3개 분야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적용원칙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상전략이론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적용원칙은 破壞(Destruction)와 占領(Occupation)에 관한 것이며 항공전략이론은 制空과 防空에 관한 것이고 해양전략이론은 統制(Control)와 拒否(Denial)에 관한 것이다.

총체적인 지상, 해양 및 항공전략이론의 적용을 개관하면 과거에는 地上戰略과 海洋戰略이 지배적이었으나 항공기의 혁신적 역할과 함께 현재와 미래에는 항공전략과 해양전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상학파들은 아직도 지상전략이 최상이고 주도적이 되어야 하며 해양 및 항공전략은 지상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지상전략이론의 적용

가. 과거의 적용

지상전략이론 중에서 관심의 대상은 파괴와 점령의 적용이다. 양자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 또는 양자를 동시에 적용할 것인가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지상전략이론의 적용에 관한 핵심적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상전략이론 중에서 누적적 파괴(Cumulative Destruction)는 消耗戰에, 체계적 파괴(Systemic Destruction)는 機動戰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전격전을 적용하여 적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소모전에 의한 파괴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지상전략에서 점령과 파괴와 관련되는 공격의 기능⁷⁾에 대하여 「공격 행동에는 적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그 장소에 고착시키는 기능, 적에 대하여 유리한 태세를 占하기 위하여 기동하는 기능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에서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타격하는 기능 등 3개의 주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에 관한 고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원칙을 기능적으로 정립한 것이 固着, 機動 및 打撃의 3개 공격기능이며, 수행할 과업에 따라 정립한 것이 主攻, 助攻 및 豫備의 3개 전투기능이다. 적을 공격하여 이를 격멸하기 위해서는 적 의지의 자유를 구속하여 攻者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적을 고착시키고 공격부대는 이 적을 타격하는 데 유리한 위치로 기동함으로써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 발휘하여 적에게 철저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격의 기능은 이론적으로 고착, 기동 및 타격의 3개 기능으로 분류되나, 그 실시는 주공, 조공, 및 예비의 3개 전투기능에 의해서 발휘된다. 주공은 공격의 주체가 되어 전투목적을 달성하는 전술기능이며, 조공은 주공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술기능이고, 예비는 상황의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

7) 鄭鎭溶編著, 用兵의 原理와 實際(兵學社, 1985), pp. 141~142.

하는 전술기능이다. 이러한 전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主攻部隊, 助攻部隊 및 豫備隊로서 주공부대는 물론 조공부대나 예비대도 각각 적을 고착시키고 기동하며 타격함으로써 이들이 달성한 成果의 累積에 의해서 공격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 공격기동형태에서 분류되는 包圍, 迂廻, 突破 및 正面攻擊 등은 공격의 고착, 기동 및 타격의 3개 기능 중 기동기능을 지향하는 방향을 고착기능 및 타격기능과 관련하여 부대를 여하히 기동시키느냐 하는 개념을 규정한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이 「用兵의 原理와 實際」에서 언급된 기동은 점령과 그리고 타격은 파괴와 관련된다고 볼 때 지상전략이론의 과거의 적용은 기동, 즉 점령이 타격, 즉 파괴보다 선호되는 개념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현재와 미래의 적용

앞에서 언급한 공격의 기능으로서 고착, 기동 및 타격의 적용은 지상군의 주요 전력으로서 병력, 전차, 자주포, 야포 및 장갑차 등의 수평전력만이 가용했을 때 주로 실시되었던 전투기능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지상군 전력에서는 항공기, 헬기 등의 항공전력과 유도탄이 크게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전을 수행함에 있어 재래식 수평전력으로만 실시되었던 고착, 기동 및 타격의 3개 전투기능을 과거와 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우선 걸프전의 전투기능 사례를 보면 쿠웨이트를 탈환하기 위한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이나 다국적 육군은 일체의 기동을 하지 않았으며 해·공군의 항공전력에 의한 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미 육군의 空地戰鬪概念(Air-Land Battle Concept)에 따르면 항공기, 헬기로 구성된 항공세력과 전차, 장갑차로 구성된 지상세력이 동시에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전격전을 실시하여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이라크군을 타격했어야 하나, 이와는 전혀 다르게 공격의 기능을 항공세력에 의한 先制破壞와 기갑부대에 의한 후속기동으로 적용하였다.

한국전이 재발하면 한국 육군은 立體高速機動戰을 적용하여 기갑부대와 헬기 부대의 협동작전으로 적의 기갑부대 공격을 격퇴하고 敵地戰爭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걸프전에서 적용한 공격의 기능은 항공부대에 의한 선제 파괴와 기갑부대에 의한 후속점령이 적용된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육군은 지상전략이론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에서 무모하게 반드시 입체고속기동전에 의한 파괴와 점령의 동시적 수행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상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항공전력과 유도탄에 의한 선제 파괴와 기갑부대에 의한 후속점령의 전투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육군전력에서 步·砲·機의 협동공격이 주도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항공기, 헬기 및 유도탄 부대의 협동공격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상전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2. 해양전략이론의 적용

가. 과거의 적용

해양전략은 지상 및 항공전략에 비하여 그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대륙국과 해양국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지상전략은 공격과 방어, 항공전략은 제공과 방공의 개념에 따라 전력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이 발전되어 왔으나 해양전략은 統制와 拒否의 개념에 따라 전력구조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마한의 해양통제론은 해양통제와 해양전력투사에 중점을 둔 해양해군전략을, 오브의 해양거부론은 해양거부와 해상교통로 파괴에 중점을 둔 대륙해군전략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해양해군전략을 수용한 해군에서는 항공모함과 전투함으로 구성된 강력한 항모기동함대를 발전시켰고 이에 비하여 대륙해군전략을 수용한 해군에서는 잠수함과 고속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대서양 전투는 해양해군전략과 대륙해군전략의 싸움, 즉 기동함대와 잠수함의 싸움이었으나 두 번 다 해양통제와 해양전력투사에 중점을 둔 해양해군전략이 승리하였다.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해양전략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해양무역 소요 및 전통적 군사사상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해양국과 대륙국은 해양전략의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을 크게 달리해 온 것이다. 해양국에서는 국가정책차원에서 해양력이 평시에 국가의富力를 창출하고 전시에는 결정적 승리의 전략요소가 되었으며 대륙국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해양국의 해군력(영국, 미국 등)에 의한 개입으로 결과적으로 대륙의 질서확립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海戰事例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해양력이 인류역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마한 제독은 해군세력을 집중하여 艦隊決戰이나 封鎖에 성공하여 해양지배(제해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해양해군전략을 제창하였으며 이러한 마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적용한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세계해양을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마한이 「海洋力이 인류역사에 미친 영향」을 저술한 동기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해군을 단지 연안방어세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해군력이 미국에게 국력신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다. 미 해군 발전의 大轉機를 마한이 군사전략 차원에서 주도했다면 디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천적 차원을 담당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大英帝國 다음의 제2위의 海軍力」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윌슨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과 동등한 해군력」 정책을 출범시켰다.

나. 현재와 미래의 적용

미국과 같은 초강해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양통제(해양지배)와 해양전력투사에 중점을 둔 해양해군전략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현재 미국 해군은 해양통제를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으로, 해양전력투사를 바다로부터의 전쟁(War from the Sea)으로 새롭게 개념⁸⁾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

8) 姜永五, 海洋戰略論(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88), pp. 85~95.

거의 해양전략이론 적용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보다는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이 선호되는 현재와 미래의 해양환경에서 해군력을 식민지를 확보하는 등의 침략적 국가성장(National Growth)에 이용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강의 미 해군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 강국들과 해양지배나 해양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무모한 해군력 군비경쟁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평화지향적 보수주의 국가들은 해군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함에 있어 너무 무리한 도발적인 해양지배나 해양통제 개념으로부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인 現存艦隊(Fleet-in-being) 개념으로 해양전략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단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북 해군전략은 해양통제와 해양전력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주변 해군전략을 현존함대에 중점을 두는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 해군의 역할과 임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한국은 해양전략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해군 등에 의해 구사될 수 있는 水中戰略核 能力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제2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를 비교할 때 이러한 나라들간의 재래식 해군대결의 승패는 큰 의미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수중전략핵 보유국의 핵공갈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둘째,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시대에 비해 앞으로는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최강 해군력 때문에 민주주의와 해양무역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해군력의 운용보다는 상호협조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해군력의 운용을 기본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해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강국 해군에 대하여 해양통제전략을 수행하려는 것보다는 현존함

대전략을 수행하여 한국 해군의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은 선양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 해군을 제압할 수 있는 해군전략을 필요로 한다 해도 주변국 해군까지 제압하려는 해군전략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3. 항공전략이론의 적용

가. 과거의 적용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전쟁에서 항공력은 전쟁의 支援要素로서의 活用, 즉 地上戰의 火力支援 정도의 인식수준에 있었다. 초기 항공전략 사상가들인 두 헤, 미첼 및 시버스키 등은 당시에 비록 성능이 뒤지는 항공기가 있었으나 未來戰을 예상하여 항공력이 전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항공력은 그 가능성을 일부 보여 주었으며 중동전을 통해 실증되는 듯 하였으나 월남전에서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항공력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치 못했다. 그러나 걸프전은 초기의 항공전략 사상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상적인 항공력의 운용, 즉 전쟁승패의 결정적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⁹⁾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항공무기체계의 혁신적 발달 때문이다.

나. 현재와 미래의 적용

항공전략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이제까지 가장 핵심적이며 결정적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항공력을 전쟁승패의 결정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항공력을 전쟁승패의 결정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제1의 목표는 空中支配(制空權)의 확보이다. 공중지배를 확보한 다음 항공력에 수반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장과 원하는 표적을 계획대로 파괴할 수 있는 초정

9) 박규복, 航空力 運用的 實際와 未來(合同軍事研究 創刊號, 1992), p. 123.

밀유도무기에 의해 전쟁을 계획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따라서 지상전 수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중지배(제공권)를 위한 현재와 미래의 항공전략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것이다.¹⁰⁾

(1) 攻勢制空(Offensive Counter Air)

공세제공은 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작전으로서 적의 비행장 파괴와 항공기 격파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걸프전에서도 제1단계 제공작전에서 적의 비행장 사용을 거부하였고, 제2단계 제공작전에서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엄체호에 엄호되어 있는 항공기를 격파하였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공세제공 작전을 이렇게 실시하게 될 것이다.

공세제공 임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對空制壓(Defense Suppression), 戰鬥機掩護(Escort) 및 電子戰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와 미래의 공세제공작전은 SAM체계를 포함한 밀집된 고성능의 防空體制 때문에 제공공격 편대군이 SAM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공제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 공군은 F-4G Wild Weasel을, 영국 공군은 Tornado ECR이라는 대공제압기와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으며 걸프전을 통해 전자전과 통합하여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공세제공작전을 성공시키려면 공격편대를 적 전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기에 의한 엄호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제1·2차 세계대전 때부터 걸프전을 통해서도 공격편대를 엄호하는 전투기가 적 요격기를 견제함으로써 제공효과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투기 엄호는 제공임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이 공중기습 개시 전에 EC-130과 EF-111을 이용하여 통신 재밍 등의 전자전을 실시한 것과 같이 앞으로 제공임무에서 전자전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선 후방 100마일 밖에서 적 지휘통신체계와 방공

10) 박규복, 상계서, pp. 124~126.

능력을 마비시키고 조기경보 레이더망을 교란하여 SAM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電子戰機의 등장으로 적의 전쟁수행능력 자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C'I 및 무기체계가 첨단 전장화된 전자환경에서 앞으로도 전자전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防禦制空(Defensive Counter Air)

空軍力에서 制空體制만 있고 防空體制가 미비 되었다면 적이 아 영 공에 대한 공격을 감행시 큰 피해를 당할 것이며 방어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공 세제공을 실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어제공 임무를 위하여 탐지 및 조기경보체제, 지휘통신망, 전투기, SAM, AAA 등을 포함한 방공체제를 구축 해야 하고 주요 制空標的에 대한 生存性 提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한국 공군도 공중조기경보체제와 공중급유기를 결합시켜야 한다. 더욱이 항공기의 발전으로 전천후 무장투하가 실시되고 정확한 항공유도무기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공조치로서 지상 레이더의 현대화, 전투기 방어의 강화, 공중급유기 및 공중조기경보기의 확보 등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분단한국에 비하여 통일한국은 미래의 항공전략이론을 적용 함에 있어 평화지향적 신항공전략사상에 따라 공세제공보다는 방어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IV. 均衡戰略思想과 均衡戰略理論의 접근

1. 균형전략사상의 접근

마한의 해양전략사상과 매킨더의 대륙전략사상은 해양국과 대륙국간의 배타 적 전략사상이었다. 따라서 반도국은 완전한 해양국이나 또는 대륙국도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과 조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생각과 같이 간단한 문제점은 아니다. 로마제국은 반도국가로서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에

따라 제해권(해양지배)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에 따라 制陸權(육상지배)¹¹⁾도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중해의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구주, 아프리카 및 중동일대의 대륙에서 초강대국 위치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에 따라 생활공간을 확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성취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 구해양전략사상에 따라 해양력은 국가의 성장, 번영 및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한의 주장에 의하면 한 나라가 제륙권과 함께 제해권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반도국은 해양국에 비하여 접경되어 있는 대륙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상군 세력을 크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진출이나 해양안보를 위하여 해군력을 준비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구주의 반도국들인 로마와 스페인이 과거에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한 데 비하여 아시아의 반도국들은 고구려와 같이 한때 강대국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약소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우리 나라도 반도국으로서 대륙으로부터의 지상군 위협과 해양으로부터의 해군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은 통상교역, 문화교류 및 인적 왕래에 중점을 둔 사상이 되어야 하며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도 현존함대에 중점을 두는 공존공영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앞으로 전개될 평화지향적 세계 민주주의 시대에는 반도국의 위치가 海陸兩面性, 즉 해양성과 대륙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유리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대륙성 때문에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이 지배할 당시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11) 제해권이나 제공권과 비교되는 육전용어가 없기 때문에 필자는 제륙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임.

당했었다. 그러나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이 예상되는 미래에는 공통국경을 갖고 있는 나라 사이에는 현재 유럽연합(EU)과 같이 육로를 통한 통상교역, 문화교류, 관광사업 및 인적 왕래 등에서 편리한 지리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국의 대륙성은 대륙과 떨어진 도서국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공통국경을 갖고 있는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침략을 자행하여 국토를 유린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평화지향적 신대륙 및 해양전략사상의 시대에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약소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국의 대륙성은 앞으로 한국인들이 대륙을 통해 만주, 중국, 중동 및 러시아 등으로 통상교역을 실시하고 자유롭게 이주하며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킨더의 제국주의적 심장지역론은 이제 잘못된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통일되고 나서 한반도의 대륙성을 잘 활용하여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에 적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국민성(성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웃 나라에 대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의 정신이 없다면 다가오는 통일한국의 21세기에 반도국이 갖게 될 이점인 대륙성을 살려 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대륙의 주변국들과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반도국으로서 대륙성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진출하기 좋은 해양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무역, 해양개발 및 어로활동 등에 있어 대륙국보다 유리한 해양환경을 갖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이들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크게 높여 수출을 할 수 있어야

국가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반도국의 해양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반도국의 대륙성을 이용하여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을 고취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을 고취하여 주변강국들인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주요 해상교통로의 주변국가들과도 해양무역과 해양개발을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문화교류, 관광사업 및 인적 왕래 등 유익한 교류에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이 통일되고 나서 한반도의 해양성을 잘 활용하여 평화지향적 신해양전략사상에 적응하느냐의 여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륙성의 활용과 같이 한국인의 국민성(성품)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웃 나라에 대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의 정신이 없다면 다가오는 통일한국의 21세기에 반도국이 갖게 될 해양성을 살려 나가지 못하고 다시금 해양의 주변국들과 좋지 않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 및 대륙전략사상을 적용함에 있어 반도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대 전략사상에 대해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두는 평화지향적 신균형전략사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균형전략이론의 접근

통일한국이 평화지향적 국가정책을 추진하려면 한국에게 필요한 균형전략사상에 따라 균형전략이론을 정립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균형전략사상에 접근함에 있어 한국은 완전한 대륙국도 아니고 해양국도 아닌 반도국의 해륙양면성을 고려해야 하고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과 신해양전략사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국주의시대와 같이 제륙권과 제해권에 기초한 군사적 승리만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반도국의 지정학적 특성인 해양성과 대륙성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륙국 및 해양국들과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균형전략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반도국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이 수용하고 적용해야 할 균형전략이론을 생각해야 한다.

지상전략이론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에서 강조된 것은 너무 무리하게 立體高速機動戰에 의한 파괴와 점령의 동시적 수행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 지상병력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전력(헬기 포함)과 유도탄에 의한 先制破壞과 기갑부대에 의한 후속점령의 전투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해양전략이론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에서 강조된 것은 우리 나라는 주변 강국들과 해양지배(제해권)를 확보하기 위한 무모한 해군 군비경쟁을 벌여서는 안 되며 평화지향적 보수주의 국가로서 해군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함에 있어 현존 함대개념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전략사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상 및 해양 전략이론에 비하여 항공전략이론은 과거의 적용보다 현재 및 미래의 적용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공세제공과 방어제공에 다 같이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지향적 신항공전략사상에 따라 방어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상, 해양 및 항공전략이론의 현재와 미래의 적용을 고려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균형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가. 균형전략이론의 정의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대륙성과 해양성을 공유하고 있어 대륙과 해양의 양대 방면으로 진출을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모두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고 합리적인 전략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상, 해양 및 항공전략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한국의 군사전략은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주변국에 대한 군사전략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자칫하면 무조건 승리만을 추구하는 과도한 공세중심의 군사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략은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힘의 위협이나 힘의 적용으로 사용하는 術과 科學이라고 볼 때 한국의 국가정책목표를 먼저 식별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군사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이 될 때까지 한국의 均衡軍事戰略을 정의하면 첫째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북한이 침략하면 이를 격퇴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주변국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주변국이 침략하면 이를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승리하는 것과 주변국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격퇴할 뿐만 아니라 국토를 통일하거나 또는 국토의 일부를 점령하여 적을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국의 침략을 격퇴한다는 것은 항공전략의 경우 아 공역에 침입한 적 항공기를 격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군전략의 경우 아 해역에 침입한 적 함대를 격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상전략의 경우 아 국토에 침입한 적 지상군을 격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 공역과 해역 또는 국토 밖에서 격퇴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적의 해역, 공역 또는 국토를 침공한다는 의미는 더욱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균형군사전략을 각군 전략으로 풀어보면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아 해군은 해양통제와 해양전력투사를, 아 공군은 공세제공과 방어제공을 그리고 아 육군은 즉응공격¹²⁾에 이어 적절한 후속점령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변국의 침략에 대하여는 아 해군은 現存艦隊를, 아 공군은 防禦制空을 그리고 아 육군은 적극적 방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균형전략은 북한에 대해서 승리를, 주변국에 대해서 격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총체적 실전전략은 「승리와 격퇴의 군사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12) 선제공격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즉응공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 단계에서 기동보다 파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됨.

나. 「억제, 승리 및 견제의 대북 균형전략」 접근

북한이 전면남침을 감행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취할 수 있는 승리의 대북 군사전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장중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북한지역을 점령하여 가급적 조속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격퇴하고 적의 주요 전투력을 격멸하여 북진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군사적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승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현재 배치된 한·미 연합군 세력만으로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초전에는 수도권에 중점을 두고 승리의 대북 균형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에 중점을 둔 승리의 대북 균형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해군은 반드시 수도권 서측방 해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공군은 수도권 공역에 대한 방어제공을 포함하여 적 공역에서의 공세제공을 그리고 육군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상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해양통제는 수도권 서측방 해역에 대한 북한 해군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축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방어제공은 수도권 공역에 대한 북한 공군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축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세제공은 북한 공역에서 제공권(공중지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地上統制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북한 지상군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축의 사용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균형전략이 「억제, 승리 및 견제의 군사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초전에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구역은 견제의 군사전략을 구사하여 적의 침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승리와 견제의 實戰戰略을 적용해야 하나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전략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균형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피·아간에 엄청난 피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군이 미래의 군사전략사상으로 평화지향적 신군사전략사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억제, 승리 및 견제의 대북 균형전략」은 그 적용에 합리성이 있다.

다. 「억제 및 격퇴의 대주변 균형전략」 접근

대주변 균형전략은 전쟁의 억제와 침략의 격퇴에 중점을 두는 균형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변강대국들에 대하여 승리의 군사전략에만 중점을 두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전략사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재래식 전력 뿐만 아니라 핵전력에서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평화, 공존 및 공영에 기본을 두어야 하는 국가정책목표에서 볼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승리의 군사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균형전략이론의 정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주변 균형전략은 전쟁의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일 그래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변국의 침략에 대하여 한국 해군은 현존함대를, 한국 공군은 방어제공을 그리고 한국 육군은 적극적 방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균형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해군의 현존함대전략은 주변국 해군과의 함대결전을 가급적 피하고 만일 주변국 해군이 한국 해역내에까지 공격해 오면 한국 해·공군이 합동작전으로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공군도 주변국 공군에 대한 공세제공(Offensive Counter Air)은 가급적 피하면서 방어제공(Defensive Counter Air)은 아공역에 침투하는 적 항공기에 대해서 탐지 및 경보체제, 지휘통제망, 전투기, SAM 및 AAA 등을 포함하는 통합방공체제를 이용하여 격퇴함으로써 적이 공격하려는 주요 制空標的에 대한 生存性 提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육군의 적극적 방어는 한국 육군이 국경선을 넘어 적 지역에서 공격작전을 실시하지 않고 주변국 육군이 침공하면 한국 영토내에서 해·공·육군이 방어의 적극적 실시로 적을 격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주변 균형전략은 앞으로 한국군이 미래의 군사전략사상으로 평화지향적 신군사전략사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적합한 것이다.

V. 결 론

우리 나라는 주변국이 대륙강국과 해양강국으로 구성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침략적 제국주의시대에는 이들로부터 침략이 끊이지 않아 국가생존 자체가 위협에 빠진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제국주의적 구군사전략사상이 평화지향적 신군사전략사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략을 위한 제국주의적 구대륙전략사상과 구해양전략사상보다는 평화지향적 신대륙전략사상과 신해양전략사상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평화지향적 신군사전략사상의 시대에는 우리 나라와 같이 해양성과 대륙성을 겸비한 반도국이 해양국이나 대륙국에 비하여 국가발전과 국가간 협력 차원에서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대륙전략사상과 해양전략사상을 수용하고 적용함에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海陸兩面性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양대 사상을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두는 평화지향적 신균형전략사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북한을 제외하면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가 한국을 침략하여 병합하거나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적 구군사전략사상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전략이론을 수용함에 있어 북한에 대해서는 침략을 억제하고 만일 침략하면 이를 격퇴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해양, 항공 및 지상전략을 수용하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침략을 억제하고 만일 침략하면 이를 격퇴하는 방향으로 해양, 항공 및 지상전략을 수용해야 한다.

미·소 냉전체제가 평화적으로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지향적 시대가 도래함에 있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일부지역에서 민족분쟁이 야기되고 있지만 이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병합시키거나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적 구군사전략사상이 적용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지향적 신군사

전략사상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사상과 군사전략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균형군사전략은 「억제, 승리 및 견제(거부)의 군사전략」을, 주변국에 대한 균형군사전략은 「억제 및 격퇴의 군사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이상과 같은 균형전략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 해군은 해양통제와 해양전력투사를, 한국 공군은 공세제공과 방어제공을 그리고 한국 육군은 즉응공격과 후속점령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은 현존함대를, 한국 공군은 방어제공을 그리고 한국 육군은 적극적 방어를 실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사상과 전략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한국 정부와 군부는 당연히 수용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통하여, 한국 군부는 국방백서와 각군 백서를 통하여 이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